

# 전남 저수지 평균 저수율 75%... 영농철 물걱정 없다

### 농어촌공사, 평년의 93%... 영농급수 체계 돌입 전국 물 부족 저수지 153곳 관정개발 등 추진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남지역 들녘의 물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9일 "영농기에 대비해 본격적인 영농급수 체제에 돌입했고 공사는 지난 4일 강원 횡천군 와동2호양수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의 저수지, 양수장 등에서 농업용수 공급의 시작을 알리는 통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현재 공사 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0%로 평년의 93%에 달해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충남 서해안의 홍성군, 서산시, 보령시, 예산군과 경기 남부의 안성시 지역의 저수율이 50~65%에 머물러 있다. 공사는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지류 등 용수 확보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지역의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5%로 평년대비 93% 수준을 보이고 있어 올해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도군 둔전저수지는 지난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해 기존 176만t에서 약 9000t 정도의 저수용량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진도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간이양수장 3곳을 가동해 하루 평균 1200t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남본부에서는 물리탐사를 마치고 지난 29일 관정 작업에 들어갔다.

공사는 전국의 저수지, 양배수장, 수로에 설치된 3300여개의 자동수위계측기 등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해 수자원 정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수율 현황과 강수량을 분석해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와 영농에 필요한 수량을 파악했다.

공사는 영농기까지 물이 부족한 저수지 153개소에 총 2470만 m<sup>3</sup>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수지류, 지하수 관정(우물) 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수확이 끝난 후부터 현재까지 1783만 m<sup>3</sup>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정승 사장은 "올해도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지를 수 있도록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



영농철을 앞두고 전남지역 물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윤석균(왼쪽에서 두번째) 본부장이 진도군 군내면 둔전저수지를 찾아 관정 작업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겠다"라며 "기후변화로 심해지고 있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난안전종합실에서 전국의 수자원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재해 대응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윤석균 본부장은 지난 4일 진도군 군내면 둔전저수지 관정

작정 현장에 방문해 용수 확보 현황을 확인하는 물관리에 나서고 있다.

윤 본부장은 "농한기에 실시한 준설사업이 농업인들이 충분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미 환율보고서 발표 불확실성 확대 2150포인트 박스권 흐름 예상

### IT·화학업종 저점매수 기회

삼성전자가 지난 7일 1분기 잠정실적으로 매출 50조, 영업이익 9조9000억원 등을 발표했다. 증권사 평균영업이익의 예상치가 9조3000억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인 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차익실현때도로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약세는 반도체회장으로 실적호전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3월말 공개 후 7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한 갤럭시 S7에 대한 시장기대치가 선반영 되었다고 투자자들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이번 실적호전이 증권사별로 발표하는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상향을 위해서는 갤럭시S8의 성공적인 시장판매와 함께 지난해 발표했던 주주환원정책의 확대가 확인된다면 목표가 상향과 함께 추가상승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 대비 약세를 면치 못했던 코스닥지수는 기관 및 외국인의 수급개선으로 사흘연속 상승했다. 원화강세가 주춤해지고 글로벌 선진주 상승세가 주춤해지며 유가증권시장에 쏠렸던 관심이 완화되었고 상대적으로 가격메리트가 큰 코스닥시장에 관심이 부각됐다. 코스닥지수는 한주간 2.2% 상승하며 630선을 회복했고 외국인 2506억원과 기관은 1737억원 순매수를 보였다.

이번주 15일로 예정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시장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의 핵심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이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1)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2)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3) 외환 순매입 규모 GDP 대비 2% 이상 등 세가지 조건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두가지 이상일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들 4개국가 중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지만 현재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이 두가지요건이 충족되며 이론적으로 지정가능성은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환율조작국 이슈는 실제 지정여부 보다 통상 및 환율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카드의 성격이 높다. 최근 미국 행정부내에서 '환율불균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내 든 것도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미흡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율불균형은 상대국 정부에서 의도적인 환율조작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요인으로 인해서라도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환율 움직임에 대해 상대국을 대상으로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영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IT/화학 업종은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로 일시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하락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로 저점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번주에도 코스피지수는 단기적으로 원화약세가 예상되며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2150포인트를 중심으로 박스권흐름이 예상된다. 환율조작국 지정우려감으로 환율약세에 긍정적인 내수주와 지난 주부터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개별종목에 단기적 관심이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청소년에 아침밥 중요성 알리고 쌀 소비 촉진

### 농협 광주본부 캠페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대선)는 최근 운남고등학교(교장 여동구)에서光山구청(구청장 민형배),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박홍식),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회장 김미원)와 농협은행 김귀남 영업본부장, 박삼지 노조위원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한톨에 키한 Tall 청소년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했다.

이날 쌀 소비촉진 캠페인은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과 유기농재료를 만든 한우 불고기 주먹밥 1200개와 생수를 학생들에게 나눠 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광주 쌀 응원 게시

판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쌀 소비촉진 캠페인은 쌀 소비촉진 및 소비판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 달성을 도모하고 청소년 대상 쌀로 만든 간식으로 우리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 및 잠재적 쌀 소비 고객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박대선 본부장은 "많은 청소년들이 품질 좋고 안전한 우리 쌀로 짓은 밥을 먹고 더욱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농협에서는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수협은행장 후보 추천 조속한 결단 내려달라"

### 수협중앙회 이사회 촉구

수협중앙회 이사회는 9일 수협은행장 후보 추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장 추천위원회에 조속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사회는 지난 7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40여 일간 10여 차례에 걸쳐 행추위를 열고도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일이 임박했다"며 "후보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못하면 은

행장 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영 공백으로 인한 수협은행의 신인도와 경쟁력 하락은 고스란히 중앙회와 회원조합 그리고 어업인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수협은행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결단을 달라"고 촉구했다.

수협은행은 오는 10일 행추위를 개최해 차기 행장을 내정할 예정이다. <연협뉴스>

## 농어촌공·농수산유통공사, 영암 왕인문화축제서 무료법률상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와 농수산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최근 영암군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찾은 농어업인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어업인 및 지역주민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에 소속된 사내변호사 등이 힘을 보탠 첫 번째 사회공헌활동 사례로, 향후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거됐다.

농어촌공사는 2015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총 12차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160여 명의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사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 돕기, 농어촌 집고쳐주기 등 기존 사회공헌 활동에서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를 추가·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박상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적용된 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이너 잔 멘디니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급매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m<sup>2</sup>(33평)
- 교육환경 최상 / 불로초바로연
- 시세 4억 3000만
- 급매 4억 1500만원

문의 010-9203-6161